

불편한 韓牛 '나 어떡해'



산지값 하락에 주인한테 미움 받고 쇠고기 값은 고공행진 소비자 원성

사료값 급등 축산농가 빚만 늘어 깊은 시름까지

장흥에서 한우 30마리를 사육 중인 김현호(77)씨는 요즘 소 사육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소값이 몇 년째 계속 떨어지면서 소를 키울수록 빚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 한 마리를 팔아 자식 대학 보낸다는 얘기는 이젠 옛말이 됐다. 소 한 마리당 500kg 기준 거래가격은 454만 원. 사료값 등 생산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1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본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소를 키우지 40년째인데, 소값이 10년 전보다 70~80만 원 가량 더 떨어졌다. 반면 사료값 등 생산비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며 "소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소고기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지역 산지 한우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쇠고기 가격은 고공행진을 하는 기현상이 지속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소 사육을 포기하는 축산농가가 늘고 있다. 9일 국립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30일 현재 전남지역 소 사육농가는 2만 23건의 성범위가 발생해 전국에서 5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순천교도소도 올 상반기에만 2건의 성범위가 발생하는 등 2009년부터 성범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재소자들의 성범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등 생산비가 급등하면서 빚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 한우(600kg) 한 마리당 가격은 454만 원으로 지난 2004년 521만 원보다 67만 원(13%) 떨어졌다. 반면 사료값은 9250원(2010년)에서 1만 775원(올해)으로 1225원(16.5%) 올랐다. 1년 간 소 한마리를 키우면 30~40만 원의 손해를 본다는 게 축산농가들의 설명이다. 이 같이 산지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구비하는 쇠고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안심·등심 등 특정부위를 선호하는데, 이 부위는 소 한마리에서 나오는 물량이 10% 안팎에 불과해 값싼 사골·우족·잡뼈 등 비선호부

위에 대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특정부위에 대해 가격을 올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안심 1kg 기준 소비자가격은 5만 7383원으로 5년 전보다 70.5%(3만 3640원) 올랐으며 등심은 4만 5051원에서 6만 4250원으로 1만 9199원(42.6%)으로 상승했다.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소중한 소를 팔아 손해를 보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가격 변동에 따르는 혜택은 커녕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비싼 한우 가격을 피해 수입산 쇠고기를 사먹으면서 그 피해는 축산농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현지 한우가격이 수년 간 계속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지나치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당국이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흥에서 쇠고기 도매업을 하는 김모(57)씨는 "우울스프 가공업체가 수입산 대신 한우 잡뼈를 값싸게 구입해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4 해질 18:05
달출몰 19:24 달몰입 08:13

태풍 큰 영향 없어요
복합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남해서부먼바다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맑음	13/28	보성	맑음	10/26
목포	맑음	16/26	순천	맑음	15/28
여수	맑음	18/24	영광	맑음	13/27
나주	맑음	10/28	진도	맑음	13/26
완도	맑음	15/26	전주	맑음	13/28
구례	맑음	11/28	군산	맑음	14/27
강진	맑음	12/27	남원	맑음	10/28
해남	맑음	12/27	축산도	맑음	18/22
장성	맑음	10/27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0.5~1.0	북동	0.5~1.0
남해	남동	1.0~2.0	북동	1.0~2.5

생활지수

식중독	59
운동	40
빨래	70

주간 날씨

날짜	날씨	기온
11(토)	맑음	13/27
12(일)	맑음	14/26
13(화)	맑음	15/24
14(화)	맑음	13/22
15(수)	맑음	12/22
16(목)	맑음	11/23
17(금)	맑음	11/23

광주교도소 재소자 '음란행위' 잦다

5년세 시설내 성범죄 등 28건 발생...수형자 관리 허술

광주교도소 내에서 지난 2009년 이후 발생한 음란 행위가 전국 51개 교정시설 중 대구교도소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9일 내놓은 '교정시설 내 음란행위로 인한 징벌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교도소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재소자간 성범죄 등 시설 내에서 이뤄진 음란 행위로 모두 28건의 징벌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전국 51개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393건 중 대구교도소(36건)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치다. 광주교도소의 경우 2009년 9건을 비롯, 2010년 8건, 2011년 4건, 2012년 3건, 2013년 3건, 올 상반기 1건 등 매년 연례행사처럼 성범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목포교도소도 지난 2012년에만 11건의 성범죄가 적발되는 등 2009년 이후 모두 23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전국에서 5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순천교도소도 올 상반기에만 2건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2009년부터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재소자들의 성범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교정 감독과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을추억 만들기 9일 오후 담양 관광재미 일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다인승 자전거를 타며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줄줄이 증인 채택

국회서 '세월호 법정' 열리나

국회가 세월호 선원의 책임을 묻는 법정(?)으로 변신할까. 294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물어 재판이 진행중인 이준석(68) 선원 등 세월호 선원 15명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을 비롯, 강원식(42)·신정훈(33) 1등 항해사, 김영호(46) 2등 항해사, 박한결(25) 3등 항해사, 박기호(53) 기관장, 조준기(55) 조타수 등 6명이 16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미흡한 구조 활동으로 공분을 샀던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줄줄이 증인 채택됐다. 특히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기소된 목포해경 김모(53) 전 123정장과 부실 관제 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포해경 소속 진도 VTS 전 센터장 김모(45)씨 등도 증인으로 불려나오게 됐다. 해경의 특혜 제공이 확인된 언더 마린 인터스트리 이사와 세그 그룹 근무 경력이 뒤늦게 알려져 보직 해임된 이용욱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 국장은 15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이 이뤄진 상태다. 모두 19명의 증인이 1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 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혈액형 다른 신장이식 성공

전남대병원 교수팀

전남대병원이 최근 혈액형이 다른 모자간의 신장이식에 성공했다. 전남대병원 김창성(신장내과)·최수진(이식혈관외과) 교수팀은 지난달 29일 말기신부전 환자인 혈액형 O형의 40대 여성에게 혈액형 A형 아이들의 신장을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환자는 수술 후 현재까지 신장이식 거부반응 없이 병실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매년 20여회 이상 신장이식수술을 해

온 전남대병원이 이같이 혈액형이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한 경우는 처음이며, 첫 성공사례로 기록하게 됐다.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은 환자의 체내에 있는 혈액형 항체가 이식된 신장조직을 공격하는 심각한 거부반응을 일으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창성 교수는 "이번 수술은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혈액형이 맞지 않아 이식을 포기했던 말기신부전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담보대출 100억 특별 한시판매

더 높은 한도 더 낮은 저금리 혜택!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 담보감정 평가수수료 면제

01 부동산 담보대출	02 햇살론대출	03 아파트 전세 보증금대출	04 자영업자, 직장인 신용대출
최저 3.5%~	운영자금 최고 2천만원 / 생활자금 최고 5천만원	전세보증금 최고 80% 까지 가능	간단한 대출 절차로 최고 1억원 까지 가능

정기예탁금	수시 입출금 통장	정기적금
1년 2.85%	최대 2.5%	1년 3.1%
18개월 2.9%		2년 3.2%
3년 2.9%		3년 3.3%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
충장지점: 223-7217, 223-7218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남	추천 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교사, 교수 28~4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